

최저임금 인상에 공공요금도 오르나

광주시, 택시 기본료 인상안 접수...목욕탕 등도 요금 인상 준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광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안이 논의되는 등 공공요금도 들쭉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일선 식당과 목욕탕 등 소비업계도 인건비 부담 탓에 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생활불가 부담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2km) 2800원을 3600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건의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인상뿐 아니라 145m마다 현재 적용되는 거리요금 100원을 100m마다 100원 적용으로 높여주고, 시간요금도 35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 올려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 '택시요금조정건의서'에는 광주택시가 시외 지역(사업구역 외)을 운행할 경우, 현재 20% 할증에서 40% 할증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심야에 시외를 갈 경우 20%의 복합 할증 적용을 60%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지역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이 이뤄졌던 지난 2013년 최저 임금은 4860(시간당)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올라 월 임금 상승액이 58만5770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14년 택시 주수석 에어백 장착·ABS제동장치 의무화, 차량 부품 및 가격 상승으로 차량구입비도 400여만원 올랐고, 관리비와 보험료 등도 2013년 대비 12.25% 올랐으며 택시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용역 등을 통해 현재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목욕탕과 식당 등지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회지표로 본 20년간 광주·전남

광주 147만7000명...17.6% 증가
전남 175만9000명...14.8% 감소
광주 1인 가구 3배 늘어...전남 65세 이상 70% 증가

최근 20년 사이에 광주의 1인 가구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고 고령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를 통해 본 지난 20년간 광주·전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광주의 인구는 147만7000명, 전남은 17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해 광주는 17.6% 증가하고 전남은 14.8% 감소한 것이다.

인구 구성비는 광주에서 0~14세 14.8%, 15~64세 73.4%, 65세 이상 11.8%였다. 전남에선 0~14세 13.1%, 15~64세 65.6%, 65세 이상 21.3%였다.

2016년의 총가구 수는 광주 56만9372 가구, 전남 72만7197 가구로 1995년과 비교해 각각 60.5%와 14.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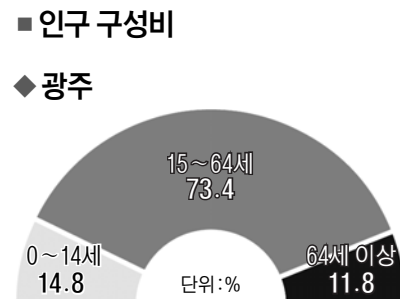
세대 구성 별로 광주의 1인 가구 수는 1995년 4만3088 가구에서 2016년 16만5169 가구로 증가해 28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남의 1인 가구 수는 10만3844 가구에서 22만7225 가구로 늘어 11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져 광주는 6806 가구에서 3만3006 가구로 385.0%, 전남은 4만2848 가구에서 9만5844 가구로 123.7% 각각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광주 17만4516명, 전남 37만5414명으로 1995년과 비교해 각각 200.2%, 70.0% 증가했다.

2014년의 기대수명은 광주 81.4세, 전남 81.2세로 2005년과 비교해 각각 3.1세, 3.8세 늘어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日 적반하장 이면에 '굴욕합의' 있었다

한일위안부합의 '이면합의' 내용

“해외 소녀상 정부 지원 말라”
한국, 日 요구 상당 부분 수용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합의 이후 끊임없이 '설(說)로 떠돌던 '이면합의'가 존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이 위안부합의 이후 소녀상 이전을 마치 한국이 합의한 것처럼 강하게 거론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배경에 이런 이면 합의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TF 보고서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안부합의는 조약이 아닌 양국간 정치적 합의의 성격이었다. 당시 양국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합의 사항으로 간주하기로 했지만, TF의 이번 검토로 당시 발표 내용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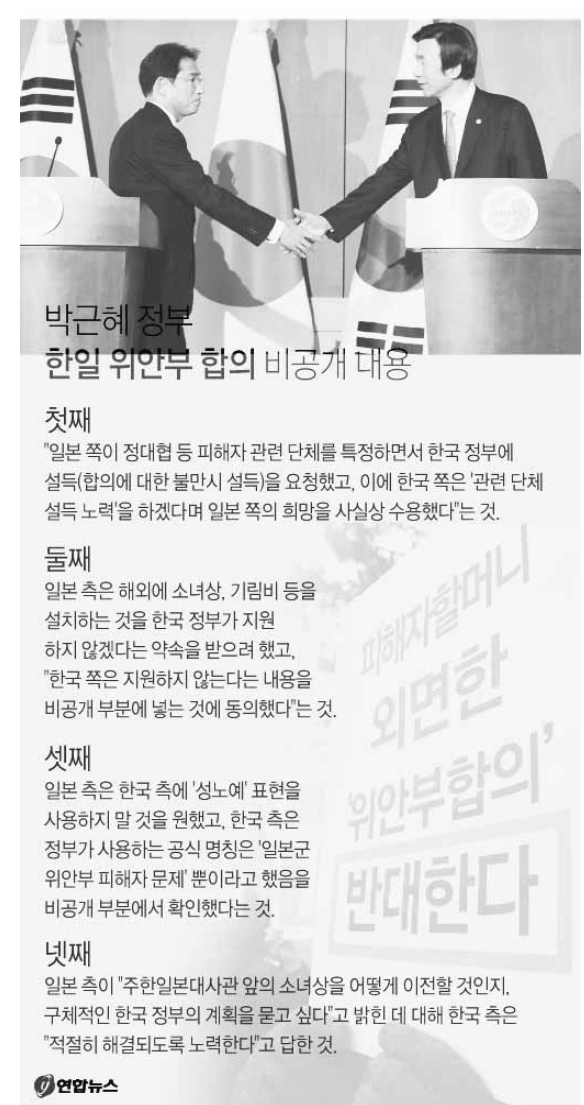
TF 검토에서 확인된 비공개 내용을 보면 양측에서 문제가 되거나 민감한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알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 측은 해외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간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대했다. 또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우리 측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했다.

일본 측은 “이번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런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협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내용의 소녀상 언급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 측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다”며 “한국 측은 소녀상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



해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양측이 협상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표현이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누가 냈을까...구세군 냄비에 1억5천만원짜리 수표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에서 역대 최고 금액인 1억5000만원 어치의 수표가 등장했다.

한국구세군 관계자는 “27일 자선냄비 모금액을 수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짜리 수표 세 장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수표는 지난 24

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됐던 자선냄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표 세 장 모두 남양주 능협에서 발행된 것으로 함께 접혀 있었고 일련번호도 이어져 있어 한 사람이 기부한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입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호텔

변경 가능

- 구례 산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텔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물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깎,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